

목어

좋은 소식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산사를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소탈하게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이 마음을 끌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너그럽고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불교를 만난 인연을 자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뽐내지는 않지만 긍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이 글자를 흔들여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입장을 찰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절 집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 불자들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만든다.

종교와 주지 자리를 놓고 싸운다느니, 속인들도 꺼려해야 할 일을 스님이 저질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좋은 소식은 적고 안 좋은 소식은 너무 자주 들린다.

불자들이 부처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다니...

사람들은 불교나 스님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불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에는 어느 종단에선가 또 종권다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흔한 질문이지만 무엇을 위해 출가를 했는지 거듭 묻고 싶은 뿐이다. 자정과 제 역할을 외면하는 불교계라면 불교가 아무리 심오하고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한들 누가 문을 두드려겠는가.

다행히 이번에 해인사대불로 빛어진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스님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참회법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불행중 다행이나 애초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을 사노라면 안 좋은 소식도 더러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요즘엔 우리 불교계의 좋은 소식이 참 많이 그립다.

도수 (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일제 30본산 지정 통치수단화”

조계종 ‘일제시대 불교정책 ...’ 자료집

1910~1945년 총독부 관보 정리

3년 작업 ... 7개 주제별 재편집

“사찰-주지-신도수까지 철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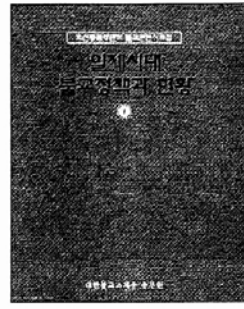
일제가 행정기구에 의한 종교 단체의 통제를 통해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려 했음이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일제 35년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렸던 불교 관련 기록을 3년 작업 끝에 정리하여 20일 발간한 <일제시대 불교 정책과 현황> 자료집에 수록된 사찰령(1911년) 포교규칙(1915년)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제는 종교단체를 식민통치의 보좌기구로 설정하고, 불교의 포교활동이 식민지 국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을 교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과 ‘포교규칙’에 따르면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묶고 사찰주지의 임

면권과 사찰재산목록서 작성의 의무와 등을 통해 재정권을 장악한 것은 물론 각 사찰과 주지, 신도 수까지 총독부에서 관리하면서 한국불교계가 일제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제는 30본산을 지정하면서 전통적인 사적과 법류(문중)관계를 고려치 않고 본산을 정하고 지역적 인접성만으로 법류가 다른 사찰의 말사로 소속시킨 것을 보면 단지 통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승려수가 1912년 7900명에 이르던 것이 1941년 6천2백여명으로 줄어든 것과 일본불교 포교소는 1915년 190여개 이던 것이



1918년 259개로 매년 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불교를 산속 깊은 암자까지 관리하며, 한국불교 말살정책을 펴왔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일제의 불교정책과 개개사찰의 현실된 근현대사, 북한소재 사찰의 현황 그리고 오늘날 불교 조계종의 교구 분사 체제가 밝아 온 과정이 수록돼 일제시대 불교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일제 강점기 금강산의 대표적 선원이었던 마하연선원의 역대주지 이동관계와 만공스님이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금강산 유점사 주지로 주석하며 ‘유점사 53봉’을 뜻하는 효봉스님 등 53명의 선지식이 수행했던 기록은 중요자료로 평가된다. 이처럼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역대주지 이동관계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생생한 거울이 된다는 점에서 자료집 발간은 의미가 크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은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조계종사편찬과 각 사찰의 사지발간에 결정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이 자료들을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올려 일제기 불교사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집에 실린 불교기록은 5000여건에 이른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발행된 10450호의 총독부 관보에서 불교 관련내용을 크게 불교정책, 30본산 연합사무소, 주지이동, 사찰청림, 포교, 사찰재산, 일본불교 등 7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인명과 사찰명, 포교소명을 색인으로 붙였다. 김원우 기자



18일 열린 승가학원 이사회에서는 종단과 학교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앙승가대’ 놓고 두 생각

종단 “자구노력 안한다” 학교 “수익기관 아니다”

중앙승가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종단과 중앙승가대의 진단은 서로 다르다. 종단은 학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 측은 종단이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8일 열린 승가학원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종단의 불만은 명확히 표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정대스님은 “마치 종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학교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학교 측을 질타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나, 수행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록금 인상,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등 종단이 제시한 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단의 한 관계자도 “안암 학사 문제만 해도 한달에 500여만원의 각종 공과금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35%로 편성하면서 이중 식당운영비를 7억원으로 잡은 것이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할 기숙사 사감을 채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다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려는 것은 중

앙승가대가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직원 6명을 줄였으며, 수익사업 요구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정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일 상투어 학교를 수익기관으로 여기는 종단의 발상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정복스님은 “종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세워 마치 학교 측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중앙승가대는 엄연히 대학이며, 대학으로서의 품위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복스님의 총장직 사퇴도 이같은 갈등구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앙승가대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억원에 있어야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25억6천만원으로는 대학 기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앙승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시점에서 동국대와의 합병문제가 제기된 것은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중앙승가대는 학교와 종단, 동문 3자간의 역할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양측 초강수 대립...수습기대 ‘난망’

‘태고종내분’ 해결책 없다

또다시 태고종 분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초법적 성격의 승려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새 판을 짜겠다’는 태고종 바로세우기 종단연합 전국 승려대회 준비위’에 맞서 총무원도 상대측의 중진스님 9명에게 ‘정적’이라는 초 강수를 내렸다. 총무원은 또 14일 경찰에 청사보호요청을 해놓았다.

총무원은 승려대회준비위측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 총무원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나 됐다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는지 많았는지 하는 것은 아니다. 현 집행부를 폐쇄해야 전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재직시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한 ‘재집권’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해초스님은 19일 “죽어서 나가면 나갔지, 종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원장인 만큼 결코 누구에게도 종권

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해초스님은 특히 이번 종단사태가 ‘세칭 7인방’이라 불리는 중진스님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종단을 위해 뜻있는 중도들과 7인방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까지 천명했다.

승려대회 준비위 측은 해초원장이 종단수습대책위의 합

의에 따라 원장으로 추대됐지만 양측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접수가 되기 보다는 운산, 대운 스님들의 영향력 아래 있어 ‘허수아비 원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승려대회측은 파행적 인사의 정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렴되지 않았다. 이렇듯 종단을 운영해 간다면 태고종의 종지중

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승려대회를 열어 이를 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고종의 이번 분규재원에 대해 고계에서는 종단 자체가 종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악순환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지난 해 11월 지난 79회 총회에서 당선된 종연 총무원장의 후보 자격이 미비함에

도 총회에 서 걸리지 않았고, 또 당선 후 1달도 못돼

상대방 후보측에 의해 흔들기를 시작해 결국 중도하차시킨 일이며, 80회 총회 개최도 종현종법에 따라 어렵게 열지 못하고 종속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계속 악순환을 몰고 와, 누가 누구를 탓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태고종의 분규는 쉽게 수습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우선 재

결된 7인방이 이해 관계에 따라 운산-대운-인공 스님, 인곡-운경-백우 스님 등 양측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가 이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7인방 스님들에게 해결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다.

승려대회에 과연 얼마만한 스님들이 참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설불리 승려대회가 열리지는 못할 것만 관측도 있다. 지난 98년 99년 조계종 분규가 워낙 세인의 지탄을 받은데다가 최근 해인사 선방 일부 수좌들의 폭력행위로 승단의 폭력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만일 대회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경우 그 결과는 태고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계에 엄청난 불행이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태고종이 물리적인 폭력상황이나 분종으로 가지 않도록 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emall.co.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중정예하 법납 61수 및 원각경 출판기념대법회**

모시는 글

거룩한 三寶前에 歸依합니다.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教界 大德큰스님과 四部大衆 十方諸位께  
를 함께하시기를 祈願합니다.  
今番 本宗에서는 靈山一空 宗正猊下の 法納 61壽를 맞이하여  
교계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法納 61壽 및 圓覺經  
出版記念 大法會를 봉행 코져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5년 7월

**\* 일시 :** 불기 2545년 8월 5일(음력 6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캐피탈 대연회장

**\* 전화 :** 대한불교 원웅종 총무원 02) 853-0531

**동행위원**

위원장 : 법륜  
부위원장 : 대월 평신 정관 선진  
위원 : 보광 체인 체도 보월 체승  
도광 체의 호연 은혜 혜림  
일공 문도회 회원 일동

**추진위원**

위원장 : 성관  
부위원장 : 성견 벽봉 천호 인관  
위원 : 정광 석천 해민 해광 선덕 진연  
성욱 체명 체정 보선 체혜 체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웅종 동행위원회 위원장 최법륜 합장**